

“최저가 낙찰 확대면 지방 건설업 고사”

300억~100억대 공사 90%가 지방 물량 수주업체 평균 15% 손실 ... 수익성 악화

정부가 추진중인 최저가낙찰제 대상 확대가 시행될 경우 중소 및 지방건설업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공사수주 업체들이 평균 15% 가량 손실을 볼 만큼 과잉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제도 확대 여부를 놓고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일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까지 확대할 경우 중소 및 지방업

체들이 '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 100억~300억원 규모의 공사 대부분을 시공능력 500~1천900억원의 중소업체들이 수주하고 있으며 공사 물량의 86.5%가 지방에 몰려 있다.

따라서 이들 업체들이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과당·출혈경쟁을 벌일 경우 해당 업계의 수익성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연구원은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까지 확대될 경우 단일공사에 평균 200~300개

사기업에 참가할 만큼 과열양상을 빚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같은 과당경쟁은 납품업체와 장비 임대업체, 하도급업체 등에 연쇄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부실시공과 저임금 구조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연구원은 국내 건설업체의 경우 이미 최저가낙찰제 시행으로 인해 업체들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된 만큼 오히려 제도 축소나 폐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발주된 최저가낙찰제 공사 54건을 분석한 결과 예상 실행원가율은 109.2%에 달했다. 이는 견적에 비해 공사실행비가 9% 이상 높게 책정된 것으로, 업체들이 수주 시점부터 적자를 감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이같은 적자 규모는 실제 공사수행시 더욱 커져 최종 실행원가율이 116.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천억원 짜리 공사를 따낼 경우 165억원의 적자를 보는 셈이다.

이처럼 업체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공사 수주에 나서는 것은 눈앞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올벼 겨자떡' 식으로 일감을 따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심지어 최근에는 대형건설사들까지 지방의 최저가낙찰제 입찰시장에 대거 참여할 만큼 공사 수주전이 과열양상을 빚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이승우 연구위원은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지방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그에 따른 경영압박과 실업률 증가, 하도급 업체 전가 등 건설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4월중 주택대출 큰폭 증가

2006년 이후 최대치인 2조4천억 ... 은행 예금도 23조 급증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각종 부동산 금융 규제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06년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은행 수신도 정기에급과 은행채를 중심으로 23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이처럼 여·수신을 통한 은행의 신용창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가파르거나 넘쳐나는 시중유동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8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서울 강북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등과 맞물려 2006년 12월(3조2천억원) 이후로 가장 큰 폭인 2조4천억원이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3조4

천억원 증가한 가운데 대기업 대출도 인수합병(M&A) 자금수요 등으로 3조5천억원이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은 부가세 납부를 위한 자금수요 등 계절적 요인이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적극적인 대출영업에 나서면서 7조4천억원이 증가, 전달의 증가액(4조2천억원)을 웃돌았다.

이에 따라 4월중 은행의 원화대출은 10조9천억원이 늘어 전달의 6조9천억원에 비해 증가폭을 확대했다.

은행수신도 전달보다 22조8천억원이 늘어 2006년 12월(23조3천억원) 이후로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돈 넘쳐 물가 상승 부추기나

3월중 시중유동성 또 5년만에 최고치 ... 금리인하 전망 어렵게 해

시중유동성의 증가세가 전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제 원자재가격의 앙등과 환율 상승 등으로 4월중 소비자물가 증가율이 4%선을 넘어선 가운데 넘쳐나는 시중자금이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하강에 대한 우려로 정책금리의 인하를 점치는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8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중 통화 및 유동성 지표 동향'에 따르면 각종 통화·유동성 지표들은 전달에 이어 또다시 5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년 미만의 정기 예·적금 등을 포함한 광의

통화(M2.광장기준)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3.9% 늘었다. 전달의 증가율 13.4%에 비해 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02년 12월(14.1%) 이후 최고치다.

2년 이상의 정기 예·적금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유동성(Lf)도 전달의 11.6%에서 3월 11.9%로 증가폭이 커지면서 2003년 2월(12.5%)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광의유동성(L·말잔 기준) 증가율은 12.9%로 전달보다 0.3%포인트 둔화했으나 여전히 유동성 과잉 수준이다.

이처럼 시중유동성이 계속 늘고 있는 이유는 금융기관의 장·단기 수신이 일제히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기업과 가계 부문의 대출이 늘었기 때문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연합뉴스

농가 '비료대란' 오나

비료업체, 가격인상·보조금 지급 요구 공급중단 나서

원자재 가격 폭등에 부담을 느낀 비료업체들이 가격 인상이나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며 공급을 중단하고 나서 농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7일 농협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화학비료업체들이 풍농과 KG케미칼이 지난 2일부터 수지가 맞지 않아 생산을 할 수 없다며 농협 공급을 중단했고 동부농화도 이날부터 동참할 계획이다.

비료업체들은 "농협 외 판매처에는 값을 50% 올려서 공급하고 있다"고 말하고 "원자재 가격, 운임, 환율 폭등에 따라 도산할 위기에 처했으나 농협이 가격을 인상해주든지 정부에서 보조금을 부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자재 가격은 작년 말에 비해서만 암모니아가 56%, 인광석이 200%, 염

화화리가 81%, 유황은 177%, DAP(인인)이 128% 폭등했으며 수출국들이 원자재를 무기화하면서 원료를 확보하기조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농협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원료 가격이 가파르게 뛴 것을 반영해 올해 초에 납품 가격을 50% 이상 인상해야 하지만 농민 부담을 줄이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평균 24% 인상을 수용했는데 최근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올해 2.4분기에만 전분기 대비 60-70%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G케미칼 관계자는 "가격이 오르면 농민들의 부담이 커지겠지만 지금은 업체들이 생산을 계속할 수 없는 여건이다"고 털어놨다.

/*연합뉴스



삼성 '멀티 익스프레스' 출시
삼성전자는 A4 디지털 복합기 '멀티 익스프레스' 시리즈 2종과 고속 컬러레이저 5종, 레이저 복합기 2종 등 기업용 레이저 프린터 신제품 9종을 7일 출시했다. 새로 선보이는 '멀티 익스프레스' 2종은 고속출력 등 다양한 프린터 기능이 필요한 사무실 환경에 알맞게 출시된 제품으로 출력·복사·스캔·팩스가 가능하다. /*연합뉴스

“유가 2년안에 200달러 간다”

WTI 122달러 돌파

국제유가가 2년 안에 배럴 당 150달러에서 200달러 사이로 이를 뛰어넘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달러 약세와 수급불안 우려가 작용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배럴 당 122달러를 돌파했다.

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개장 전 전자거래에서 배럴 당 120.93달러까지 상승한 데 이어 정규시간 거래에서도 배럴 당 122.73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이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WTI는 또한 전달 증가에 비해 1.87달

러 상승한 배럴 당 121.84달러에 거래를 마감, 증가기준 사상 최고치도 함께 경신했다.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마침내 배럴 당 110달러선을 돌파해 또다시 사상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6일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은 전달보다 배럴당 3.48달러 급등한 113.25달러선에 가격이 형성됐다.

한편 골드만 삭스는 6일 국제유가가 '슈퍼-사이클'(장기급등 사이클)에 빠져들면서 향후 2년 최고 배럴당 20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환율 연일 급등

1,020원대 돌파

원·달러 환율이 6거래일 연속 급등하면서 두달여만에 1,020원대로 올라섰다.

원·엔 환율도 100엔당 20원 이상 폭등하면서 980원선에 근접했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달보다 달러당 11.60원 급등한

1,026.1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달 28일 이후 6거래일간 30.10원 폭등하면서 지난 3월17일 1,029.20원 이후 두달여만에 1,020원대로 상승했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환율이 추가 약세와 고유가 등의 여파로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22달러를 돌파하는 등 급등세를 지속하면서 정유사의 결제수요가 대거 유입됐다.

외국인 주식매도분의 역송금 수요 등을 기반으로 역외세력이 매수에 적극 나선 점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연합뉴스

중소세 불성실신고 2,567명 중점 관리

광주지방국세청, 고의 신고 위반 가산세 40% 중과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기주)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업자 2천567명(전국 3만7천명)을 중점관리하고 부당한 신고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 40%를 중과하기로 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지역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해손실세액공제, 신고·납기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광주국세청은 2007년도 귀속 중소기업 확정신고기간(5월1일~6월2일)을 맞아 지난해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광주·전남지역 22만명(전국 431만명)에 대해 가장 신고자, 추계 신고자 등 13개 유형

으로 납세자별 특성에 맞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대규모 사업자와 의료업자 등 고소득자영업자 1천172명을 개별관리하고, 특정항목별 문제사업자 1천395명은 전산분석내용을 안내해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또 신고후 조기분석을 실시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9일 개통될 예정인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와 관련하여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고,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증시 대세상승 '시동'?

글로벌 증시 완전한 회복세 ... 국내시장 낙관론 고개

신용경색 악재를 딛고 글로벌 증시가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자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 상장사들의 이익이 늘어나고 수급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대세 상승이 다시 시작됐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증시의 강세는 금리인하에 따른 유동성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상승 추세의 복귀를 단언하기 힘들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코스피, 연중 저점 대비 17.76% 급등 = 7일 코스피지수는 전달에 비해 5.05포인트(0.27%) 하락한 1,854.01로 마감했다.

지수가 단기급등 부담에 나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연중 저점(1,574.44)을 기록한 3월17일 대비로는 무려 279.57포인트(17.76%)나 뛰어올랐다.

이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초래한 글로벌 신용경색이 최악의 상황을 지났다든 진단 속에 최근 글로벌 증시가 회복세를 보인 결과다.

◆"대세상승 다시 시작된다" = 연초 주식시장의 급락을 야기한 대외악재가 완화되고 국내 수급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코스피지수가 조만간 2,000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나대투증권은 3개월 내에 코스피지수가 2,000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우리투자증권도 2~4분기 지수 고점으로 2,000선을 제시했다.

신영증권 김세중 투자전략팀장은 "2년 이상의 장기투자자에게 1,850대 중심의 회복 장세는 더 없이 좋은 투자회기가 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를 지나면서 주식시장이 장기 강세장 궤도를 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유가 등 대외불안 여전 ...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 그러나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 여전히 불안한 대외변수를 감안할 때 지나친 낙관론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올 들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제유가는 전달(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사상 최초로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미감일	연락처
오페라텔리스파소프트센터	[규기]헬스케어/사무직/인내테크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9	062-956-9405
㈜유진하우징	현장관리/생산관리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5/10	062-603-2656
현대페인트공업	대리점관리 정규직 영업사원	초대졸/경력무관	2400~2600	05/13	062-361-1151
iAE 유학네트 광주지사	[유학네트/고학지원팀]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3	062-233-8171
LG전자.동광주서비스센터	인내테크 사원 (내방고객 안내 및 상담)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5/13	062-512-6212
ok웨딩클럽 광주센터	[OK웨딩클럽] 광주센터 웨딩플래너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4	062-223-0805
비엘골프클럽	매니저/헬스레이너/오기강사/인포/경리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4	062-526-6500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관리/정책개발 및 지역특색산업조사 등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5	062-350-2404
㈜엘이즈	소빙을 워드자이더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5/15	062-717-5036
이메스에너지	경영지원/발전소건설기술/마케팅/생산/연구소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6	062-946-7100
이모더퍼펙트	백화점 매장관리 및 영업사원	초대졸/경력무관	2600~2800	05/16	062-231-1816
한국인택트	경리/회계업무 담당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5/16	062-574-2400
한성일테크	공정자동화(FAI),PLC,SERVO,HMI 시운전 사원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0	062-972-8685
이노벨코리아	전기, 전자부품 및 제품 제조 장치 조작용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5/20	062-521-803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1회용 도시락' 금지 규제 없앤다

1회용 종이컵과 종이 봉투에 이어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1회용 도시락의 사용을 금지한 규제도 전면 해제된다.

환경부는 다음 주 중 음식물용 담은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도시락 용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삭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합성수지를 대체할 재질의 용기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성수지 도시락용기의 사용 금지 규정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와 협의를 거친 뒤 다음달 말에 공포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